

예 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528천 km ²	G D P	404억 달러 (2013년)
인구	24.41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1,656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Yemeni Riyal (YR)
대외정책	친아랍, 친서방	환율(달러당)	214.89 (2013년 평균)

- 예멘은 한반도의 2.4배 넓이의 국토에 2,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매장량의 점진적 고갈로 인해 1인당 GDP가 1,656달러(2013년)에 불과한 중동 지역의 빈곤국임.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차례 외채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음.
- 1990년에 이슬람 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이 통일된 이후 북예멘 출신의 Saleh 대통령이 장기집권해왔으나, 2011년 2월 민주화 시위가 발발하여 2012년 초에 정권이 교체되고 전 부통령인 Hadi가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과도정부 수립 후에도 친정부, 반정부 세력간의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우며, 북부 지역에서는 시아파 Houthi 반군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세력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AQAP)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원유생산량 감소와 사회불안 고조가 경제성장 저해

- 원유매장량의 감소,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원유생산 인프라 손상,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연료 및 전력 부족의 심화가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2013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4.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원유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시아파 Houthi 반군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고조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더욱 낮아진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생산량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매장량 고갈에 기인하여, 신규 유전의 개발 없이는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2013년 말 기준 예멘의 원유매장량은 30억 배럴로 추정됨.
 - 일일 원유생산량(천 배럴) : 291('10) → 228('11) → 180('12) → 161('13)

□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초 지속

- 부족간 갈등으로 분열을 거듭하는 민심의 수습,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투자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 기초를 지속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화책으로 공공부문 임금 인상 및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2013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7.6%로 전년(4.9%) 대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정부의 유류보조금 감축 시도가 전 국민적인 반발에 직면하여 취소되는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7.7%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예멘 정부의 금년 1~5월 중 원유수출 수입(收入)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한 수준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리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높은 수준 유지

- 소요사태와 테러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고조가 외국인투자 유입과 리알화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한 결과,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2013년에는 11.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예멘은 금융제도의 미비로 정부가 이자율 조정보다는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최근 리알화 환율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통화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물가상승 압박을 증가시켰음.
- 2014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리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 송유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내수용 유류 생산 감소에 따른 유류 수입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9.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5.7	-12.8	2.0	4.6	2.1
재정수지 / GDP	-4.0	-4.9	-4.9	-7.6	-7.7
소비자물가상승률	11.2	19.5	9.9	11.0	10.3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와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석유산업은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큼.

- 그러나 신규 유전 탐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알카에다 등의 테러 활동으로 인한 석유 부문에의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일일 원유생산량이 2003년 451천 배럴에서 2013년 161천 배럴로 10년간 64.3%나 감소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농업은 인구의 약 75%가 종사하는 주요 산업이나,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비료 구입여력이 없어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농산물의 대부분은 카트(qat)이며, 식량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카트는 환각성 식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국제 유통이 금지되었으나 예멘인들이 즐기는 기호품임. 환금성이 높아 곡물 대신 카트를 재배하는 지역이 증가하며 식량 증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및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에 따르면, 2012~14년 중 예멘 인구의 25.7%가 영양실조 상태로 추정됨.

□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고 가중

- 예멘은 중동 지역의 최빈국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국민의 54.5%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에 따르면, 예멘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85개국 중 154위로 최하위권 그룹인 Low Human Development 국가에 속함.
- 공식실업률은 15% 안팎이나 비공식 실업률은 35~40%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위로 인해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웠던 2011년 9월에는 52%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
 - 대부분의 노동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로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비농업 부문 특히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여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움. 빠른 인구 성장률로(연 평균 3%) 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 생산 개시로 추가 재정수입원 확보 기대

- 2005년 승인된 Yemen LNG(YLNG)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 2034년까지 25년간 연 620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동 프로젝트에는 프랑스의 Total(39.6%), 미국의 Hunt(17.2%), 예멘가스공사(16.7%), 예멘사회보장연금청(5%) 외에도 한국 사업주들이 다수 참여하였음(한국가스공사 8.9%, 현대종합상사 3%, SK에너지 6.9%, 삼환기업 1.6%, 한국석유공사 1.1%).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3년 말 0.5조 입방미터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주요 재정수입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103억 입방미터를 기록하였음.

다. 정책성과

□ 경제 다각화 추진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

- 2006년부터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천연가스, 농업, 수산업 및 관광업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교통,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석유수출 외의 재정수입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성과 부진

- 2010년 발표된 중기개발계획은 재정수입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GDP의 8~10%를 차지하는 연료보조금을 철폐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7월 말에 시도된 연료보조금 철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으며, 징세 강화도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일반소비세(*general sales tax*, 세율 5%)를 도입하며 세수를 다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상품수지는 석유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상품수입액이 증가하여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미국 등으로부터의 원조 유입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3.0%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201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 전환과 원유생산량 감소세 지속으로 인해 동 비율이 3.7%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국제유가 하향 안정과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4.4%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9월 예멘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7월 중 석유수출에 따른 예멘 정부의 재정수입은 1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0%나 감소하였음. 이는 석유 부문 인프라에 대한 반군 조직의 거듭된 공격으로 원유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결과임.
 - 특히 Maarib의 주요 유전지대와 홍해 연안의 Ras Isa 원유수출 터미널을 연결하는 총연장 438km의 송유관이 5월과 7월에 부족 반군의 폭탄 공격을 받아, 홍해 연안의 원유수출 터미널까지의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어 원유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음.
 - Maarib 송유관은 예멘 남부의 Aden에 위치한 정유시설에도 원유를 공급하고 있어, 동 송유관에 대한 공격은 원유수출은 물론 내수용 유류 생산량도 감소시킴. 이로 인해 유류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됨.

□ 외환보유액은 2008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2008년 말 81.1억 달러까지 증가했던 외환보유액은 원유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 사회불안 고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어 2013년 말에는 50.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6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각종 시위와 테러 공격의 여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2011년 말 이래 최저 수준임.

□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일정 수준 유지 계속

- 외채규모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8~12년 중 20~22%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2013년 말에는 19.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D.S.R은 2013년 말 3.3%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4.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1,398	-1,161	-986	-1,474	-2,017
경 상 수 지 / G D P	-4.5	-3.7	-3.0	-3.7	-4.4
상 품 수 지	-825	574	-3,786	-2,904	-3,114
수 출	7,648	9,117	7,570	8,136	7,532
수 입	8,473	8,543	11,356	11,040	10,646
외 환 보 유 액	5,588	4,195	5,814	5,033	3,971
총 외 채 잔 액	6,551	6,758	7,182	7,776	8,646
총 외 채 잔 액 / G D P	21.0	21.5	21.9	19.2	19.0
D S R	2.8	2.5	3.1	3.3	4.4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극심한 혼란

-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촉발된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 간의 내전 수준의 충돌 끝에 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이 34년간의 장기집권을 마감하고 2012년 1월 퇴진한 뒤, Abdel-Rabbuh Mansour Hadi 부통령이 2월의 대선에서 당선되어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음.

□ 과도정부의 연방제 추진, 시아파와 분리주의 세력의 반발에 직면

- 예멘 과도정부는 2013년 3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대화회의(National Dialogue Conference, NDC)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신헌법 초안 내용에 합의하면서 10개월 만에 NDC를 종료하였음.
- 이어 2월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예멘을 6개 주로 구성되는 연방 국가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으나, 북부의 시아파 Houthi 반군과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부족간 충돌, 알카에다 지부(AQAP)의 세력 확장으로 치안불안 심화

- 예멘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정부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여 지방세력의 자치형태를 띠고 있음. 이슬람주의가 만연한 북부 지역에서는 일부 부족들이 외국인을 납치하고 송유관을 공격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예멘에는 1,700여개의 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부족은 중앙정부보다 소속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여 예멘의 영토적 국가정체성은 낮은 수준임.

- 북부 Sadaa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수천 명의 시아파 Houthi 반군은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적 소외에 대한 불만으로 수년간 정부와 교전을 벌인 끝에 2010년 2월 휴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금년 들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음.
- 남부 지역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부족 세력이 약했으나, 알카에다의 사우디아라비아 지부와 예멘 지부가 통합하여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를 출범시키며 국제 테러세력의 중심지로 등장하였음.
- AQAP는 2010년 1월 '아덴 아비안' 군을 창설하여 조직을 체계화한 이후 예멘 주재 영국 대사관 폭탄 테러, 소포 폭탄 테러 등 다수의 테러사건을 저지르며 예멘 및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AQAP는 최근 들어 예멘 동남부에서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등 항구적인 거점의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예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예멘 정부를 지원하여 AQAP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음.

□ 시아파 Houthi 반군과 AQAP의 공격으로 혼란 가중, 치안상태 악화

- Houthi 반군은 정부군과 수주일 동안 교전을 벌인 끝에 7월 9일 수도 Sanaa 북부의 Amran 주를 장악하고, 7월 30일 정부가 시장가격의 30%에 달하는 연료보조금의 전면 폐지를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는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여 Sanaa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지속하였음.
- Hadi 대통령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9월 2일 내각을 해산하고 연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였으나, Houthi 반군은 9월 21일 UN의 중재로 정부군과의 휴전에 합의한 직후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 MEED지는 최근 프랑스 Total(예멘 석유 부문의 최대 투자자), 오스트리아 OMV 등 예멘에 진출한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예멘의 사회혼란 가중, 치안 악화,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원유수출 위축 때문에 예멘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3. 국제관계

□ 9.11 테러공격 이후 대 테러전을 위해 미국과 군사적 협력 강화

- 예멘은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적극 협조하며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미국 정부의 대 예멘 원조규모는 2012년 3억 2,857만 달러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2013년 2억 4,289만 달러, 2014년 1억 4,26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은 AQAP 소탕을 위해 무인 폭격기로 AQAP의 예멘 내 거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왔으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의 발생으로 예멘 국민들의 반미 감정 고조를 초래하였음.

□ GCC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노력

- 예멘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원함에 따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예멘 노동자들의 사우디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에 취업하고 있는 예멘인 근로자들의 송금은 예멘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임.
- 그러나 200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협정 체결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2010년에는 GCC 국가들의 주도로 예멘을 지원하기 위한 '예멘의 친구들'(Friend of Yemen) 모임이 결성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외채부담 경감

- 과거 파리클럽 등을 통해 수차례 외채를 리스케줄링 하였고, 세계은행의 고채무저소득국(HIPC)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았음.

- 예멘 정부는 IMF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채무재조정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5년에는 HIPC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었음.
- IMF 이사회는 지난 9월 4일 예멘에 대해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성장 증진을 위한 3년 만기 5억 5,29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차관(ECF) 제공을 승인하였음.
- 동 승인으로 예멘 정부는 IMF로부터 7,380만 달러를 즉시 인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인출될 예정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OECD는 예멘의 정치·사회 불안정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예멘에 대하여 2010년 4월 이후 최저등급인 7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현재 까지 계속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는 예멘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인수 불가능.
- 영국 ECGD: 인수 불가능.
- 독일 Hermes: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5. 8. 22. (북한과는 1963. 3. 9. 수교)
- 주요 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협정('03)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2013년) : 18.4억 달러

□ 해외직접투자 (2014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8건, 12.9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예멘 직접투자는 중동 지역 1위이나(천연가스 개발 중심), 2010년 이후 정치·사회불안의 영향으로 신규 투자가 중단되었음.

< 표 3 >

한·예멘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8	주요 품목
수 출	140	179	265	자동차 및 부품, 전기기기, 인조섬유
수 입	1,102	1,663	1,570	구리, 알루미늄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은 산유국임에도 중동 지역의 최빈국으로,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수출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원유생산량의 지속적 감소와 정치·사회 불안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2009년에 생산을 개시한 천연가스가 향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치불안과 사회혼란의 지속이 천연가스 개발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있음.
- 34년간 집권해온 Saleh 대통령이 민주화 시위의 결과 하야하고 Hadi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과도정부가 출범하였으나, 혼란을 틈타 알카에다의 테러활동, 시아파 Houthi 반군과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 등의 정부군에 대한 공격 등으로 정치/사회 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8년 이후 20~22%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그러나 원유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 사회불안 고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위축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우려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